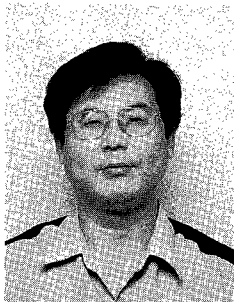


생산과잉이 문제다.



김 홍 한
충북양계축협 상무

1. 그날 이후

IMF 구제 금융이 시작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육계업의 변화는 육계인의 소득과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이후 전체 산업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왔고, 육계업 또한 자유업이지만, 이 굴레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제 우리도 자구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 상상을 초월한 소비 감소

육계업과 관련된 책자 및 사람들의 입을 빌리면 '97년 대비 소비감소가 20%~50%라고 제각기 판단하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의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수치를 나타낸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소비둔화는 전년 대비 50% 수준에 육박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97년도 국민 1인당 GNP가 9,511\$, '88년도 국민 1인당 GNP4,295\$, '98년도 국민 1인당 GNP가 5,000~6,000\$ 정도라면 닭고기 소비 수준이 8~9년은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가 감소한 것만큼 생산도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3. 계속되는 과잉 생산

육계시세의 결정은 시장원리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98년도 육계 생산은 과연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통해 본다면 '97년 대비 25% 정도의 생산감축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적인 생산감소보다 실질적인 소비감소가 더 빠르게 움직이다보니 계속적인 과잉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생산조절을 위해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움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호황이 올것이라고 믿고 누구를 막론하고 전보다 버티기로 꾸려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살아남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생산조절에 다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모습이 오늘 육계업의 현실이 아닐까?

지금까지 정부자금을 이용한 시설투자 등으로 우리의 육계업은 질적·양적으로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국내 수요가 줄어 들에 따른 여유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합심하여 연구한다면 수출의 길도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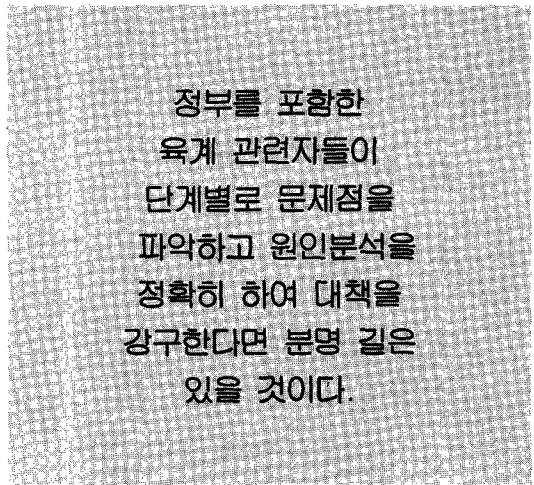
4. 육계업의 구조 조정

다른 산업은 정부에서 주도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지만 우리 육계업은 관련자 스스로가 자구적인 계획에 의하여 실행될 수밖에 없다.

농가는 농가대로 부화장은 부화장대로 계열주체들은 계열주체대로 나뉘대로의 구조조정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몸집이 작아진 이때 더 강도높은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기업간에 빅딜을 바라보면서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어온 과잉증복투자 업종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한국기업 풍토에서 볼 때 하나의 큰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육계업에도 빅딜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5. 함께 동참하는 자세

육계 관련업을 기능별로 나눈다면 제 1단계 사육조절기능, 제 2단계 생산가공기능 제 3단계 시장유통기능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를 포함한 육계 관련자들이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여 대책을 강구한다면 분명 길은 있을 것이다.

육계업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일 수 없고 남이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자멸만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보다는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망계**